

추사 김정희에서 고암 이응노까지

6월 30일까지 기린미술관서
근현대 한국 고서화 기획전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욱)에서는 6월 30일까지 근현대 한국 고서화 37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추사 김정희의 석란도, 표암 강세황의 산수화, 청암 이삼만의 10폭짜리 글씨가 선보인다. 그리고 석파 이하응의 석란도, 천심축제 민영익의 난도 전시하고, 청전 이상범의 하경산수, 고암 이응노의 군무도 등이 전시된다.

조상의 열과 혼이 담긴 전시작품에서 우리는 지난 날의 삶과 호흡을 읽을 수 있으며 시공을 넘어 아름다운 담소를 나눌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전주는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농경문화가 발달했던 풍요로운 전라도의 중심지이다. 넉넉한 인심과 정신속에서 풍류와 서화 문화 전통이 강해서 한말의 중심적인 서화 문화 예술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여행이라는 말 또한 전주를 일컬어 예술의 고장이라고 이름지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한국 예술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옛 선인들의 회화 문화의 맥을 볼 수 있는 조출한 행사이다. 전체를 보아는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문화인의 정서와 품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17세기 조선 후기 화가인 원교 이광사(1705-1777), 표암 강세황(1713-1791), 청암 이삼만(1770-1847), 추사 김정희(1786-1856)의 귀한 작품이 소개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기꺼이 허락한 동진화랑 김동진 대표께 심심한 감사사를 드린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기린미술관 전시회에는 민화가 4점, 서예가 3점, 한국화가 30점이 선보이게 되는데, 한국화 전문가나 그림애호가 가 만족할 만한 귀한 작품들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의 관람료는 무료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기자

강암 송성용(1913-1999), 운보 김기창(1913-2001), 오암 안동숙(1922-2016), 벽천 나상목(1924-1999), 유산 민경갑(1933-2018), 남천 송수남(1938-2013) 등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기꺼이 허락한 동진화랑 김동진 대표께 심심한 감사사를 드린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기린미술관 전시회에는 민화가 4점, 서예가 3점, 한국화가 30점이 선보이게 되는데, 한국화 전문가나 그림애호가 가 만족할 만한 귀한 작품들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의 관람료는 무료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하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기자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춤의 향연 '모악정서 선녀와 나무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자연이 그려낸 모악의 따스한 품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춤의 향연 창작 무용극 <모악정서 - 선녀와 나무꾼> 공연이 펼쳐진다.

무용단의 <모악정서>는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설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구성된 창작 무용극이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설화 중 하나이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전래동화로도 잘 알려져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며, 모악산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전통춤의 뿌리를 찾고 대중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함께 호흡하며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두 남녀 무용수의 우아하고, 간결한 춤사위와 역동적인 군무에 흥겨운 사물놀이 등 민속춤을 토대로 창작된 춤사위들이 어우러지며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적인 무대미학과 현대적 감성을 담은 음악으로 이루어진다.

무용단 24명의 무용수가 선보이는 이번무대는 인원이 풍성하고 탄탄한 춤구성으로 무대



를 가득 채운다. 모악정서-선녀와 나무꾼 예매는 오늘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된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가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정읍시립미술관,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로 대성황

20일 특별기획전시 대장정 마무리

한국근현대미술 10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가 오는 20일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1월 24일 개막한 '100년의 기다림-한국 근현대명화'전은 평소 접하기 힘든 한국현대

대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다룬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폐막을 일주일 앞둔 현재 3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 수를 기록,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에게 친근한 작가들의 작

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시를 마치 관람하지 못한 관람객은 20일까지 미술관을 방문해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립미술관은 이번 특별기획전시 후속 전시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랑 기획전시 '소소한 희노애락'전을 준비하고 있다. 내달 14일 개막해 6월 30일까지 42일 간 열린다.

/정읍=김태환 기자

지역의 수려한 경관들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진안출신 임혜령 감독

휴스턴국제영화제 2개 부문 수상

진안출신 임혜령 감독(30)이 장편독립영화 '경치 좋은 자리'로 제52회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장편영화부문 금상과 아시안 영화부문 베스트편집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진안군 용담댐 수몰지역을 배경으로 뛰어난 영상미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참여하는 등 전문배우가 없는 영화로 호평 받았다.

휴스턴국제영화제는 1961년부터 영상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작품을 시상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영화제로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뉴욕 영화제와 함께 미국의 3대 영화제로 꼽히는 권위 있는 영화제다.

임혜령 감독은 진안군 정천면 출신으로 다큐멘터리 '우포늪 사람들' 조연출을 비롯하여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거나 직접 연출하는 등 젊은 여성감독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신예 영화감독이다.

임 감독은 지난 2014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주최하고 전주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시네마를 강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고향인 진안에서 영상제작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제작을 해오고 있다. 이번 영화에 출연한 주민들 중 일부도 진안군에서 진행한 주민시네마를 통해 만난 인연들이다.

임혜령 감독은 "어린 시절 댐이 수몰되면서 주민들이 이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겪은 기억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숨어 있는 수려한 경관들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재탄생 시키고 싶고, 소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